



5면

책의도시 전주 국제립책도서관개막

전주매일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음 4월 4일) 제30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문화재 현장을 찾아서

송하진 도지사는 3일 영모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과 수선루(보물)를 둘러보고 주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현장시찰에는 김창렬 전안부군수, 전북도·진안군 문화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건 적발

도 특사경, 전주 등 도내 부동산 과열지역 대상 단속 결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교란행위 및 부당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2021년 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해 의심사례 114건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거래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신고 조작 및 방조, 가족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

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2, 군산 8, 익산 9건 등 총 19건이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해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탄소융복합 제품 가능성 홍보

도-탄소진흥원, 'JEC World 2022' 참여 한국관 운영

전북도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탄소소재·부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탄소소재융복합산업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복합재 박람회인 'JEC World 2022(국제 복합소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

진흥원은 이번 전시에서 한국관(기업제품전시)과 카본라이프를 운영한다.

특히,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탄소소재·부품과 스포츠·레저, 리빙 등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탄소소재 활용 제품 등을 전시해 우수 중소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관에서는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균용기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 디스크와 카본 몰드 ▲모터사이클용 리어 웬더, ▲진자파 차폐 피복재 및 차량용 레이더 모듈 케이스, ▲탄소발열보드와 스노우멜팅 시스템, ▲탄소섬발열체를 이용한 휴대용 발열 조끼 등 8개 기업의 30개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진흥원이 스웨덴 국립 연구기관(RISE SICOMP)과 공동으로 개발한 Type V 수소압력용기를 전

시한다. 이는 현재 상용화된 TypeIV 형태의 수소압력용기 대비 무게를 20% 가량 줄이고 효율을 향상한 최신 기술이다.

진흥원이 호주 퀸즈대학 김일용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탄소복합재 적용 경량 항공기 좌석'은 기술혁신상 항공·우주 부문 후보에 올라 대한민국 탄소복합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혁신상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시상 프로그램으로 ▲항공우주, ▲자동차, ▲전자·가전, ▲선박 등 10개 부문에 걸쳐 혁신적인 복합재 솔루션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 세계 112개국 1,3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에 대한민국이 주인공으로 선정돼 '수소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린다.

프랑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플라스틱 옴니움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한국탄소나노협회, 하성규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탄소소재를 적용한 수소압력용기 개발 현황과 미래 기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 관광마케팅 일상회복에 따라

도, 외래 관광객 방문 대비

설명회·리부팅 등 개최

웹투어·인문학 여행 실시

해외 개최 행사 참여해

전북여행체험 등 홍보

합학습비, 버스인차료 및 투어(관광) 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신청 학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달 27일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관광업계와 홍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 설명회(전북에 온 페스타)를 개최, '전북관광 활성화 재개(전북관광 리부팅)'를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렸다.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웹투어'(사전답사 여행)3회, 34명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문화 여행을 통해 배우는 '전북 인문학 여행'(4회, 1000여명) 등을 5월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열리는 주요 관광 행사에 참여해 전북체험여행 등 특수 목적관광 상품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더불어,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 대상 당일여행과 숙박여행 상품을 기획해 6월부터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천공항 환승투어(관광) 대기실 내에서 도와 14개 시·군 체험여행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북의 구석구석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전북 외국인 전용 정기버스'를 인천공항으로 확대 운영을 통해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 체험 콘텐츠 확충 및 청정하고 안전한 전북여행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광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열차여행 상품을 이용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투어버스를 제공하는 KTX 연계 '기차타고(㉠)!' 버스타고(㉡)! 오늘은 전북가자!' 사업을 추진해 외래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여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단위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 트렌드(유행) 맞춰 2인 이상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슬기로운 전북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다채로운 대면 프로그램을 기획,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북의 축제를 보여줄 예정이다.

도는 특히,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먹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간 억눌려 왔던 여행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외래관광객이 도내를 방문해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광객 수용 준비와 관광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어린이날 관개로 5일자 신문 쉽니다.



가정의 달 기획전
Like You
행사기간: 2022. 4. 28. ~ 5. 31.

정성 가득, 마음을 담은 『가정의 달』 선물 기획전

『가정의 달』 이벤트

- 상품권 : 10 ~ 35% 할인상품 구성, 1+1 등 추가증정
- 구매회원 대상 80명 추첨 1만 포인트 지급(6월내 지급)
- * 단품미인쇼핑몰 회원가입 하신 분들에 한합니다.
- 신규 회원가입고객 3천 포인트 지급

설문 이벤트

- 기간 중 구매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설문조사 URL 문자전송)
- * 설문응답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 증정

063-532-4345
063-535-4345